

법리와 기독교론 관점에서 AI기술 개발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I. 시작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해주신 거룩한 수고 및 탐구의 축복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의 책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 망라되어 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 문화와 해석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그 메시지(시그널)의 모든 측면을 헤아리며 탐구할 수는 없다.

오늘 AI와 창조론의 대주제에서 우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종교와 신앙 차원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모여있다. 그의 쟁점은 과학기술이 종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과학이 가장 인기 있는 형태의 구원¹⁾)에 주의하며, 과학 및 과학기술과 신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서로 조명해 줄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본다. 과학 및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는 놀라운 도구이다. 그러나 과학 및 과학기술이 우리들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의미와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인본주의와 달리 과학 및 과학기술이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우리를 물품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전해주었으면 한다. 신앙 고백을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Clive Staples Lewis)의 말의 힘을 빌려 밝히고자 한다. “내가 해가 떴다고 믿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뜬 해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도 그와 같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해 준다는 확신과 함께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확신을 언급한다.²⁾

1) 찰스 콜슨/낸시 피어시/ 정영만 옮김,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요단, 2023, 371쪽.

* 이 글은 저자의 선행연구인 “인공지능 개발의 계약법상 접근”, IP & Data 법 제5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와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표준화)에 대한 법제 연구, AI혁신법제연구 25-02, 한국법제연구원, 2025를 바탕으로 저자의 묵상과 실험적으로 적용한 생각들을 정돈하고 하나의 작은 매듭을 지은 것이다.

2) 알리스터 맥그래스/박규태 옮김,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과학과 신학의 하나님 탐구, IVP, 2023, 61쪽.

AI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공행정, 의료, 교육, 사법, 금융, 광고, 유통, 운송 등)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현재 활용 중이거나 제안되고 있는 AI는 범용 AI가 아닌 좁은 의미의 AI이다. 즉 이는 사람처럼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AI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탐구해야 할 질문은 AI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규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법상 어떤 것이 AI에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는지, 어떤 분야에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어야 할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람 또는 AI에 의한 AI기술 개발³⁾은 감히 하나님의 창조에 비견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자연, 사람 등을 친밀하고 정교하게 조율하셨는지(fine tuned) 그 원리와 규칙을 점점 더 명확히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과 섭리를 각성하게 된다.

이 글은 AI의 활용보다는 그 이전에 AI기술이 개발되는 단계에 주목하며 법리와 기독교론 관점에서 AI기술 개발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법리 관점에서는 AI의 정의, AI기술 개발의 특징과 방식,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신앙의 중심으로서 구속사를 이해하고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는 열쇠인 기독교론 관점으로 옮긴다. 법리 관점에서 살펴본 AI기술 개발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관련된 기독교론으로 조금 깊이 있게 사료해본다.

II. 법리상 AI기술 개발

AI기술의 개념에 대하여 과학자, 개발자, 법률가의 이해에 차이가 있거나 있을 수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규범화 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AI기술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주요 표준인 ISO/IEC 22989에 따르면,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등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EU AI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배포 후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수신한 입력을 통해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3) 개발과 발명은 기술 혁신의 연속적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발명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적 원리를 창출하는 창조적 단계를 의미하는 반면, 개발은 그 아이디어나 기술을 실용적 가치로 전환하여 현실적 효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적 문제나 개선의 필요성이 발견될 경우, 이는 다시 추가적인 발명 또는 개선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순환적 상호작용은 지속적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개발과 발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혁신의 연속적 흐름 속에서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칠 수 있는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 등의 산출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하는 기계 기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1호). 이와 비견하여 국내 인공지능기본법상 AI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1호).

기존 컴퓨터프로그래밍은 연역적 추론에 기반한다. 즉 컴퓨터는 데이터와 상세한 규칙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와 달리 AI기술 개발 시 특히 심화학습 및 기계학습은 귀납적 추론에 기반한다. 즉 상세히 짜진 규칙을 포함한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데이터와 결과물을 연결하여 패턴과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오늘날 컴퓨팅기술은 사람의 인지 체계와 유사한 학습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의 뇌에는 1천억 개의 뉴런이 있고, 1백조개의 뉴런의 연결이 있다. 인공지능망기술은 이처럼 사람의 뇌를 모방하고 있다.

심화학습 및 기계학습은 알고리즘에 따라 제공된 인공 신경망의 훈련데이터 및 입력데이터를 학습하여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AI기술은 범규범의 취지에 입각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알고리즘 기반 규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한 AI의 판단을 객관적 사실로 간주하지는 알고리즘의 중립성은 AI가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아울러 심화학습 및 기계학습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편향성·차별성·오류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지, 해당 데이터의 출처 관리, 이상 데이터의 식별, 편향·오류 제거 등이 중요하다.

AI에게 법인격과 유사한 전자인격을 부여하려는 논의가 있다.⁴⁾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대상이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대상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위책임은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를 전제로 하지만, AI 자체에 책임 주체성을 인정하려는 논의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어쨌든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AI를 사람과 같이 다루어 AI의 결함에 초점을 맞춘 결함책임에 의존하지 않는 선택의 적합 여부가 문제된다. 실제로 AI의 구체적인 작동 평가기준으로 논의하는 내용은 제조물책임에서 결함 평가기준의 문제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결함책임으로 보고 AI에 관여하는 사람을 넓게 책임 주체로 보는 방향성이 유익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AI가 로봇⁵⁾에 탑재된 AI 로봇(피지컬 AI)이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위의 법인격 쟁점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AI 로봇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독립된 주체로 보고 AI 로봇의 권리를

4) 유럽연합 의회는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하여 전자인격체(electronic personality)라는 법적 지위의 부여를 결의한 바 있다. 즉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Liability No. 59 f) 참조.

5) 특히 최근 협동로봇의 활성화와 규제에 대한 법적 과제에 대해서는 배효성,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연구 - 협동로봇을 중심으로”, 법과 기업 연구 제14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와 “로봇 분야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참조.

다루거나, 다른 한편으로 제품으로 보고 소비자의 보호를 다루기도 한다. 또한 AI기술과 로봇공학을 규제하기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다루며 그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기도 한다.

AI기술의 특징 중 AI의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여기지고 있다. 이 자율성은 사람의 제어나 감시 없이 작동하는 자동학습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체에 다양한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의 자율성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는 책임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손해전보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적 사적 집단으로부터 출연금을 원천으로 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통해 손해보상을 실현하는 보상기금제도이다. AI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현재 예상 또는 인정된 기술 수준을 상정할지, 자율성이 상당히 높아져 사람의 활동을 대체하는 단계로 상정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과실책임과 제조물책임에 대한 규율 체계 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위험책임에 기반한 기존 제도의 확대와 개별 분야에서 입법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AI의 자율성으로 인해 사람의 관여가 줄어들어 인적 책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책임 상실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이론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무과실책임론의 업데이트는 그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 무과실책임의 한 형태로 위험책임 또는 엄격책임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칙이지만 적용대상과 범위, 요건, 면책 사유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Ⅲ. 기독교상 AI기술 개발

하나님은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이 있으라.”와 같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로 친밀함을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흙(먼지, 띠끌, 가루)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창2:7).

AI기술 개발에서나 AI와 사람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인격적 관계란 쌍방 사이에 인격적이어야 한다. 마치 자연주의와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비인격화 시키고, 신비주의는 사람을 비인격화시키는 것⁶⁾에 빗대어 볼 수 있다. 사람은 고난, 고통, 절망 등에 부딪히고서야 하나님께로 더욱 돌아가게 되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자율성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죠이선교회, 2015, 223쪽.

AI의 자율성과 비견하여 우리가 자율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이성과 상상으로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목적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행동함으로 우리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사물의 차이다.⁷⁾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은 수임자 또는 청지기이다. 이러한 지위에는 사법(私法)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책임)가 따른다.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적 존재임을 일컫는다.

AI기술 개발과정에서 개발자는 미세조정(fine turning)의 과정을 거치며 AI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들을 보면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fine turned). 이에 빚대어 시계를 만드는 기계공이 시계를 만들지만 시계가 돌아가는 것에 관여하지 않으며, 시계는 법칙대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이는 계몽주의 이후에 발생한 이신론의 입장이다. 즉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이 자연과 자연법칙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 그 자연과 역사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정밀하게 조율하신 하나님을 우주론적 시계공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중요한 이슈, 곧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법칙의 관리자이며, 인간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에 의해서 인격적 관계로 주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므로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격에게만 역사하신다.⁹⁾

AI기술의 특징은 데이터에 기반한 패턴과 추론으로 결과물을 도출함으로 예를 들어, 상담 분야에서 관계적 정서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담의 핵심 요소인 상호 친근한(친밀한) 관계(rapport)의 형성 시 진정성 있는 공감의 부재하고, 비언어적 뿐만 아니라 언어적 단서의 포착에 어려움이 있다. AI는 주요 패턴을 분석해 공감하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상담자가 느끼는 깊은 수준의 정서적 교감과 전인적 이해를 대체하기 어렵다. 상담 시 피상담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침묵의 의미 등이 주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지만, AI 상담 시 깊이 있는 비언어적 맥락을 놓칠 수 있다. AI 상담 시 AI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인격적 만남과 임상적 직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혁신적인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라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된다.

7)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비교.

8)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죠이선교회, 2015, 236쪽.

9) 위의 책, 267쪽.

IV. 마치며

AI의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intelligence이다. 이는 지능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CIA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지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나 사실의 나열이라면, intelligence는 그 정보에 문맥이나 맥락을 더해 판단과 행동으로 연결한 진정한 정보로 이해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계산이나 스스로의 지혜와 논리에 근거해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을 바라셨다.

다른 한편 AI는 한국과 일본에서 인공지능(人工知能), 중국에서 인공지능(人工智能)으로 각각 번역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투입된 데이터나 정보를 인식하고 축적하는 능력, 즉 지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과제 해결의 방안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人工智能)이라는 표현이 그 개념적 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은 참과 거짓을 윤리적 철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구별할 능력, 즉 명철(明哲, practical wisdom)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적 의미의 지혜나 도덕적 분별력을 보유한 존재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자기;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비스듬히(창1:26, 27).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인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거리를 두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느 인격들 중의 최고 인격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 이상이시지만, 그렇다고 초인이나 초자아가 아니다.¹¹⁾

과학자, 과학기술자, 개발자 등이 인공지능망을 통해 AI에 부여하려는 자율성과는 다른,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자율성, 선택의 자유)를 부여해주셨다. 우리는 로봇이나 인형이 아니다. 사람인 아담(용어 창세기 2:19에 첫 등장)과 하와(용어 창세기 3:20에 첫 등장)가 선악과

10) 첩보 수집의 방법에는 공개출처정보분석(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인간정보분석(human intelligence, HUMINT), 신호정보분석(signal intelligence, SIGINT), 기술정보분석(technical intelligence, TECHINT), 금융정보분석(financial intelligence, FININT), 지형공간정보분석(geospatial intelligence, GEOINT), 영상정보분석(imagery intelligence, IMINT) 등이 있다. 나무위키, “정보기관”, <https://namu.wiki/w/%EC%A0%95%EB%B3%B4%EA%B8%B0%EA%B4%80> (최근 접속일: 2026. 5. 3) 참조. 참고로 북한에서 인텔리는 지식인 또는 지식 및 기술 계층을 뜻하며 대체로 노동자, 농민, 시장상인과 함께 인민계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북한 내부담화에서는 지식을 활용해 정책 슬로건에 맞춰 동조하는 성향을 내포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11) 한스 쾅/서명옥 옮김, 한스 쾅, 과학을 말하다: 만물의 시초를 둘러싼 갈등과 소통의 드라마, 분도출판사, 2021, 115쪽.

를 따먹은 불순종(배반, 배신)을 핑계로 일관하였다. 회개가 없었다. 죄를 직면(보기)하지 않았고 자복하지 않았으며, 애통해하지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그 가능성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을 것 같다. 회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셨을 것 같다.

우리 안에는 유전자가 있다. 공감하는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그러나 유전자는 의식이 없다. 유전자는 인격적이지 않다.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다. 유전자는 정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부다. 정신과 유전자 사이에는 신경 체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AI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인공지능망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가지도록 개발되고 있다.

AI가 전쟁에 실제로 활용되는 시대이다. 패권주의 정치인들은 천연자원, 해계모니,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방적 차원의 전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해왔다. 조지 오웰식의 언어 왜곡을 총동원하여 전쟁의 근거와 전쟁의 목표를 꾸며대었다. 지금도 이것은 진행형이다.

과학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군사적 갈등이 심화되고 무기 개발의 각축장에서 사실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따지며 올바른 사고방식을 얻는 과정에서 벗어나곤 하였다. 반인륜적 행위를 묵인하며 거짓된 논리를 전개하여 과학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계속된 시도는 무척 우려된다. 또한 과학기술 낙관주의에 따른 접근은 과학기술의 구현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회적 수용성, 윤리, 법제도, 조직 문화 등 현실적 제약 조건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낙관적인 평가는 민주주의사회에 대한 위협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의 기초인 낙관주의적 신조가 미치는 영향력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표면적으로 이에 대한 반란으로 보이는 마르크스주의가 동일한 낙관주의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¹²⁾ 이처럼 우리가 항상 위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새로운 진화 단계(또는 AI와 공진화)로 대담하게 전진한다고 하는 불꽃같은 낙관론(또는 에스컬레이터 신화¹³⁾, 이상향)은 씩씩한 냉소주의로 바뀔 가능성이 무척 크다.¹⁴⁾

12)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욕구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인간구원에 대한 열망을 건드리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기 자신의 주인, 자기 자신의 신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의 뿌리이다, 찰스 콜슨/넬 시 피어시/정영만 옮김,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요단, 2023, 358쪽.

13) 위의 책, 354쪽, 377쪽 참조.

14) 위의 책, 394쪽.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법리와 기독교론 관점에서 AI기술 개발	발표자	장원규
		논찬자 (소속)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먼저 귀한 발표를 준비해주신 장원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표문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단순한 기술적·산업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법리와 기독교론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관점에서 함께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AI기술 개발이라는 현대적 주제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인간 존재, 자유의지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하여 사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앙적 통찰 또한 깊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AI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하여 인간 존재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사님께서 법학과 신학, 그리고 과학기술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셨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표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하나님 형상(Imago Dei)에 대한 신앙적 성찰은 오늘날 기술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AI기술의 발전을 무조건적인 낙관이나 비관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의 책임성과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고자 하는 박사님의 문제의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발표문을 읽으며 공감하였던 부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논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II. 법리와 기독교론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공감

오늘날 AI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기술 발전의 효율성과 규제의 필요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안전성이나 산업 진흥에만 머물지 않으며, 인간의 자유와 책임, 존엄성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문은 AI의 자율성, 법인격, 책임 귀속 등의 쟁점을 단순한 기술법적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인간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인간은 누구인가”, “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은 AI기술 개발의 법적 특성을 비교적 충실하게 정리하면서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 이해와 신앙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자율성,

법인격 부여 논의, 책임 귀속 문제 등을 단순한 기술법적 쟁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AI 규제 논의는 주로 위험 기반 접근이나 산업 진흥과 안전 확보의 균형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발표문은 그러한 논의 이전에 “인간은 누구인가”, “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함의를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III. 인간의 인격성과 AI의 한계에 관한 성찰

최근 생성형 AI와 감성형 AI의 발전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언어와 감정을 모방하며 정서적 교감까지 제공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 고유의 인격성과 관계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간과 AI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인간 존재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술문명 속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는 인간다움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AI 상담, AI 돌봄, AI 친구 서비스 등은 인간의 외로움과 정서적 결핍을 기술적으로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의 근원적 공허와 구원의 문제까지 기술이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발표문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발제자가 강조하는 “인격적 관계”의 개념은 인간 존재를 단순한 데이터나 정보처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기독교적 인간관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표문은 AI기술 개발을 단순히 산업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의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죄성과 권력의 문제와 연결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특히 AI가 전쟁과 군사기술에 활용되는 현실, 그리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목적 속에서 과학기술이 동원되어 왔던 역사적 경험을 언급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 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발제문은 과학기술 낙관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IV. 추가적으로 논의 할 내용

발표문은 AI의 위험성과 인간 존재의 고유성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지점들도 함께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과 AI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 발전을 신앙적 관점에서 어디까지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문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향후 기독교 세계관과 기술문명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발표문은 AI와 인간의 본질적 차이를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별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AI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이미 기술과 결합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며, AI 역시 인간의 사고와 판단 구조를 상당 부분 보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간과 AI의 관계를 단순한 대립 구도가 아니라, 인간 책임성의 확장과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표문은 AI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문화명령(cultural mandate)과 기술 발전의 가능성 측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단순한 지배의 의미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청지기적 사명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기술 역시 인간의 탐욕과 우상화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장애 보조, 재난 대응, 공공행정, 교육 접근성 강화 등에서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선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은 중요한 신학적·법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V. AI 법인격 논의와 책임법제의 과제

AI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법적 책임의 귀속 문제 역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성을 가진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판단과 결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법체계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이러한 문제를 법인격 부여 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AI에 대한 독자적 법인격 인정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읽혔습니다.

특히 책임의 분산이나 인간 책임의 은폐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향후 초지능 AI나 자율형 AI 시스템이 등장할 경우, 기존 제조물책임이나 과실책임 체계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법철학과 법신학 차원의 논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VI. 맺으며

오늘날 우리는 AI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명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점점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으며, 인간 존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표문은 AI기술 논의를 단순한 제도 설계나 정책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와 구원, 자유의지와 책임, 하나님의 형상과 공동체라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AI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기술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쉽게 압도되고 있지만, 정작 인간다움과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발표문은 단순한 기술 비평을 넘어, 현대 문명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어떠한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표문은 법학과 신학, 그리고 기술문명을 연결하려는 중요한 시도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융합적 논의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